

안세영, 세계개인선수권 첫 금 도전

속적 야마구치와 준결승 맞승부, 우승 최대 고비 전망 45년 남녀 단식 무관 깨고 한국 배드민턴 새역사 기대

올해로 27회를 맞는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은 아직 단식 종목 금메달을 단 한 차례도 획득하지 못했다.

1977년 스웨덴에서 처음 열린 세계개인선수권 대회는 개인전 5개 종목(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 중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 대회다.

한국은 남자 복식에서 4차례, 여자 복식에서 1차례, 혼합 복식에서 5차례 우승을 일궈왔지만 유독 남녀 단식 종목에선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1993년 8회 대회에서 여자 단식 방수현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1995년 9회 대회에선 박성우가 남자 단식 은

메달을 획득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45년 무관의 역사를 끝낼 주인공으로는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이자 세계 랭킹 3위인 안세영(20)이 가장 유력하다.

안세영은 22일부터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단식에 출전한다.

부진상으로 32강에 오른 안세영은 24일 첫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와 말레이시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준결승에서 상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랭킹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의 대결이 우승을 위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은 2019년 프랑스로

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처음 만난 야마구치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뒤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도 야마구치를 2-0으로 제압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후 열린 2021 BWF 월드투어파이널과 2021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야마구치에게 연달아 패하면서 열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열린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 결승에서 펼쳐진 11번째 맞대결에서도 야마구치에게 패하며 통산 전적 4승 7패로 뒤져 있다.

여자복식에선 세계 3위 이소희(28)·신승찬(28)과 4위 김소영(30)·공희웅(26)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1995년 9회 대회서 우승한 길영아·장혜옥에 이어 27년 만에 정상에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세계 1위인 중국의 천칭천·자이판과 2위인 일본의 후쿠시마 유키·히로타 사야카의 벽을 넘어야 우승이 가능하다.

남자복식 서승재(25)·최승규(27)·강민혁(23)·김재환(26)도 2014년 고성현·신백철 이후 8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1 인도네시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태극의 포르피리 초추원을 상대로 분전하며 포효하는 안세영. /AFP=인도네시아 배드민턴 협회 제공



지난 21일 열린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R8 50m 여자 소총 3자세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한 이윤리(왼쪽)와 이우정이 시상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문상될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가운데)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제공>

이윤리, 50m 소총 3자세 '세계新'

결선 461.1점...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 2관왕

이윤리(전남장애인사격연맹)가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소총 3자세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윤리는 지난 21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R8(50M 소총3자세) 종목 결선에서 461.1점을 기록하며 종전 결선 세계기록 459.4점을 경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첫날 R2(10M 공기소총)에서 249.1점을 쏘아 우승을 차지한 이윤리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함께 출전한 이우정(강릉시청)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윤리는 2008년부터 15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공식 세계신기록 3번, 아시아신기록 1번을 세웠을 뿐 아니라 비공인 세계신기록 4번, 한국 신기록 11번, 한국 타이 기록 7번, 대회 신기록 20번 등 신기록 제조기로 불린다.

2021년 장애인사격 국가대표로 2020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해 5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 금메달, 2016년 리우패럴림픽 은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검증받으며 대한민국 장애인사격의 위상을 높였다. /박희중 기자



제10회 익산시사리장애인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 출전한 광주시 장애인탁구 선수단. 왼쪽부터 김성욱, 남기원, 김영건, 이준, 김정길, 조재관 감독.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체고 문건영 '제2의 양학선 꿈꾼다'

문광부장관기 체조대회, 개인종합·안마·도마·평행봉 '4관왕'

'제2의 양학선을 꿈꾼다'

광주체고 남자체조 간판 문건영(1학년)이 지난 18-21일 영광군 스포티움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체조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문건영은 대회 남고부에 출전해 개인 종합(76.200)1위, 안마(13.267)1위, 도마(13.483)1위, 평행봉(13.967)1위, 링(12.033)3위를 차지해 대회 4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1학년 선수가 2-3학년 선배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사례는 무척 드문 사례다. 대한체조협회 관계자들도 향후 문건영의 성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주시하고 있다.

윤택한 기량을 선보인 문건영은 지난 제47회 KBS배 전국체조대회에 이어 개인종합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다관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된다. 한편, 문건영은 11월에 체고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니어 올림픽대회 예선 주니어 국가대표로도 참가할 계획이다.

김재안 광주체고 교장은 "선배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멋지게 다관왕을 차지한 문건영이 자랑스럽고, 더욱 큰 성장에 기대된다"며 "향후 1-2년 후 시니어 연령이 되면 광주체고 선배인 양학선 선수와 같이 올림픽에 참가할 그림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체조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한 문건영. <광주체고 제공>

광주 장애인탁구 전국대회서 금 3은 2 동 1

김영건·서수연·김성욱 우승

광주 장애인 실업팀이 최근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메달을 수확하며 오는 10월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2일 "광주시 장애인탁구 선수단이 최근 제10회 익산시사리장애인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서 금메달3개, 은메달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0. 임원2)은 실전 감각을 다듬기 위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변함없는 기량을 발휘하며 전국체전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대한민국 장애인탁구의 간판 김영건(TT4), 서수연(TT2), 김성욱(TT7)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정길(TT4)이 은메달, 이준(TT3)도 은메달을 따냈다. 남기원(TT1)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0월19일부터 24일까지 울산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박희중 기자

'당구 천재' 김행직, 완벽 부활

정읍대회 이어 고성군수배 우승...2개 대회 연속 정상

'당구 천재' 김행직(전남당구연맹)이 올해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김행직은 지난 20일 경남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2 경남 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 캐롬 3쿠션 남자일반부 결승전에서 이충복(시흥시체육회)을 상대로 37이닝 만에 50-46으로 승리했다.

결승전단계 김행직과 이충복은 접전을 펼쳤다. 김행직이 앞서가는 듯했지만 이충복이 11이닝째 역전했다. 김행직은 그러나 18이닝째 25-24로 앞서며 전반을 마무리했다.

28이닝째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김행직이 하이런 8점을 몰아치며 5점 차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김행직은 8강전에서 김형곤(서울당구연맹)을 50-26(20이닝)으로 꺾고 4강에 올라 정승일(서울당구연맹)에게 하이런 9점 장타를 2번 펼쳐며 50-32로 승리,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 정읍전국당구선수권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전국을 제패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쏜 김행직은 서울3쿠션월드컵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행직(전남도체육회 제공)



'2022 경남 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 캐롬 3쿠션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행직 <전남도체육회 제공>

을 일으키며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포켓볼 복식에서는 장문석-서서아(전남당구연맹)조가 지난 정읍대회에 이어 연속 우승에 도전했으나, 결승전에서 박기찬-한소예(울산당구연맹)조를 맞아 치열한 접전 끝에 7-8로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10월 여자일반부에 출전한 서서아는 전해주(대전당구연맹), 임윤미(서울시청)에 이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희중 기자



22일 열린 PGA 투어 BMW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 마치고 환하게 웃는 이경훈 /AP=연합뉴스

이경훈, '錢의 전쟁' 간다

데뷔 첫 투어 챔피언십 진출

이경훈(3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극적으로 합류했다.

이경훈은 22일 미국 델라웨어주 월밍턴의 월밍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BMW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74타로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친 이경훈은 페덱스컵 순위 26위에 자리해 상위 30명이 나가는 투어 챔피언십 진출을 확정했다.

이경훈이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경훈은 지난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페덱스컵 순위 31위를 기록, 상위 30명이 나가는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 좌절됐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광주여대체육관에서 열린 2022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 남자시니어부 우승을 차지한 광주 '광산연합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광주·전남 배구동호인 전국대회 '두각'

문체부장관기 대회, 남녀클럽부 우승 등 대거 입상

광주·전남 배구동호인들이 광주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2일 광주시배구협회(회장 전갑수)에 따르면 2022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가 지난 20-21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한배구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배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광주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광주와 전남을 비롯 제주, 경

기, 대전, 인천, 전북 등 각 시도에서 활동중인 배구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해 평소 같고 뒤는 기량을 겨루며 건강과 진목을 다졌다.

5개 부별로 치러진 대회에서 남자클럽3부는 '더 빛날'(광주)이 우승 영예를 안았다. '더 빛날'은 준결승전에서 광주 남자생활체육 강호인 '배사모'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제압한 뒤, 결승에서는 목표의 '난공불락' 팀을 역시 세트스코어 2-0으로 꺾어 우승했다. 3

위는 '배사모'와 '돌핀스'가 차지했다. 여자클럽2부에선 '무등산'팀이 우승을, '나인스타'가 준우승, '목포열풍'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 6인제부 남자는 대전시 연합팀이 우승했다. 광주 '배사모'는 준우승을 안았다. 6인제부 여자는 광주의 '천를림'이 우승해 금메달을 걸었다. 목표의 '한울클럽'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자시니어부에선 광주 '광산연합'이 결승에서 접전 끝에 '무등산'팀을 이기고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박희중 기자